

# “ 기독교 중심교리 : 부활 ”

## ■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어느 정도 그를 믿고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서 뿌리째 흔들렸다. 제자들은 고향으로 각각 흩어져 갔고 베드로조차 주를 세 번이나 부인했다. 그를 따르던 남녀 신자들도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사흘만에 예수가 부활하자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러 목숨 걸고 나섰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성경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다른 모든 교리들이 이것을 기초로 세워진다.

###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성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교리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해 줄 유일하고도 충분한 원인은 하나님 곧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며 그가 전파했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입증한다.

###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

그가 지상에 살고 계셨을 때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것과 자신이 사형당한 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것이 잘못된 주장이라면 그는 정신이상자나 신성 모독자 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옳다면 부활은 그의 주장을 실증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입증한 것이다.

### 칭의와 성화에 대한 증거

예수는 우리가 범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고 사도는 선포한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드린 제사를 받으셨음을 입증한 것이 그의 부활이다. 또한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살려 주는 영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있다면 우리에게도 참 거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영생과 심판에 대한 증거

예수의 부활은 죽음이 이생의 종국이 아님을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그들도 살림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진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어느 누구도 무덤 저편의 삶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신자는 완전한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학자들의 불멸성에 대한 이론은 개연성 일뿐이지만 우리의 부활에 대한 유일하며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자신의 부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승리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종적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셨을 때 그가 심판자가 되실 것으로 주장하시면서 최후 심판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그의 주장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날이 오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들은 원수가 없어졌으니 안전하다고 자축하였다. 그러나 그 후 부활이 찾아왔고, 바로 이 행위로써 하나님은 죽음이 결코 그리스도의 종국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셨다. 그것은 결코 그의 끝이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악은 세상 안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 무엇도 마침내 그것을 정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죄는 십자가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에서 승리의 팡파르를 울리셨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로 드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과 심판에 대한 증거다. 할렐루야!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한 주전,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왕으로 고백하며 더욱 경건한 예배자의 심령으로 준비되어 종려주일에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다음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매일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순절공동기도문 : <http://www.seoulchurch.or.kr/upload/Lent.jpg>

예배당에서는 꼭 스티커가 있는 자리를 확인한 후 앉으시고, 대화 시에는 상호 간에 거리를 유지하며,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410\\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410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달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a href="http://seoulchurch.or.kr/">http://seoulchurch.or.kr/</a>

## “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

**■ 마 21:1-11**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발걸음을 묵상하고 따르는 기간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찬송가 311장)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결단이 있는 믿음의 행로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긴 여정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마 16, 17, 20장에서 반복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때가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결심도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아셨고 마음 준비도 마치셨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도착하시자마자 쉴 틈도 없고 주저하지도 않으시고 단호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결단해야할 시기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전 3:1,2) ‘예루살렘에 들어가자’하시는 말씀에 각오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코로나를 핑계하면서 세월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까? 그토록 열망했던 교회회복을 위해,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라며 사모했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2.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슥 9:9) 메시아는 겸손하신 왕이셔서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보면 풀어 끌고 올 것을 분부하셨고 만약 주인이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오늘의 나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며 재능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명일수도 있습니다. 값비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한마디에 기꺼이 자기를 드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결심이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3. 그를 찬송하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찬송하며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못마땅하게 여긴 그들에게 주님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반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주장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특별하고 측량 못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당연히 내가 누리야 할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반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작은 헌신 하나도 마치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오만볼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오직 은혜일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 받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걸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일예배

## 찬양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김익환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안용곤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조동수 목사	조동수 목사

오후 4시 30분 ·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8:49-50 ..... 인 도 자  
 찬 송 ..... 141(132) ..... 다 함 께  
 기 도 ..... 감성주 집사  
 찬 송 ..... 288(204) ..... 다 함 께  
 성 경 ..... 행 21:1-12 ..... 인 도 자  
 세례식 ..... 손달익 목사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다음 세대들” ..... 설 교 자  
 \* 찬 송 ..... 290(412)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막 11:9-10...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9(종려주일)...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31(46)...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21:1-1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331(37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안용곤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모양순 권사 II부: 김은숙1 권사  
 성 경 ..... 행 21:13-38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회고와 결단 ..... 설 교 자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월11일(월) ~ 4월16일(토)-

오전 5시  
 설 교 ..... 손달익 목사

## 성 금요일 기도회

오후 8시 ..... 본당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허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마 21:10-11)		
수요I부	호산나	최유현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성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소식

### ☛모임

- 홍해작전본부 분과장 모임 / 10일(주일) 오후 12시20분 802호
- 디자인팀 서울교회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제안 설명회 / 10일(주일) 오후 1시 601호
- 사라 전도회 모임 / 10일(주일) 3부 예배 후 801호
- 리브가 전도회 모임 / 10일(주일) 3부 예배 후 502호
- 에스터 전도회 모임 / 13일(수) 3부 예배 후 802호

### ☛알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금일 세례식 실시 - 4월 세례(세례, 입교)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이번주 심방 일정  
3-9다락방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고난주간 / 내일 11일(월)부터 16일(토)까지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고난주간 프로그램으로 인해 금주 다락방 리더 훈련은 모이지 않습니다.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11일(월)-16일(토) 새벽 5시  
· 금식: 15일(금) 해있는 동안 십자가를 생각하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헌금으로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구제를 합니다.)  
· 성 금요일 기도회: 15일(금) 오후 8시에 드립니다.
- 부활절 /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일 I·II·III부 예배시간에는 부활절 감사헌금, 금식헌금을 드립니다.  
찬양예배 시간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특별찬양예배로 할렐루야 찬양대가 섭니다.  
☛장례  
1. 故 이효상 집사(2교구 이응선 장로의 3남) / 4월5일(화) 별세, 4월8일(금) 천국환송예배  
2. 故 조응식 집사(4교구 유명석 권사의 부군) / 4월8일(금) 별세, 4월10일 발인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559명	371명	1,930명	330명	1,861명

##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자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건강한 사람은 경결하고 아름답지만 질병은 사람을 초라하게 하고 누추하게 만든다. 미개한 백성은 위생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추잡한 짓을 한다. 무엇보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죄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세리와 창기를 개 취급한 이유가 이 까닭이다.  
극심한 최악의 공해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깨끗케 할 수 있을까? 사회봉사나 우국충정을 구호처럼 외치는 이들이 있다. 성도가 해야 할 사회봉사는 먼저 자신을 깨끗케 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깨끗한 교회와 성도는 자연히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뽑는 것이 자신과 국가 사회 심지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써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에는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